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장비 구매 전문위 구성을”

담당 공무원 잦은 보직 인사 관리 허술·전문성 떨어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지역 실정 파악 못한 채 심의

출자·출연기관의 고가 연구장비의 구매에 앞서 전남도가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잦은 인사로 보직이 변경되는 공무원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데다 산업자본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역시 지역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심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출자출연기관 장비공동사용 조례” 제정 검토 등 관련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광주일보 17일자 1·3면>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 환경산업진흥원 등 4곳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998

억6200만원 상당의 562개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한 뒤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구매 자체가 잘못됐는지 여부와 구매 이후 수요 감소 원인 등을 파악한 뒤 가동률 상승 대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지만 실제적인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 최근 인사로 업무를 맡아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데다 각 기관이 장비를 구매한 뒤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중복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동률 수치만 높이는 추상적인 대책과 예산·인원 충원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도 감사에서 9억6833만원짜리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설비’를 갖춰놓고도 3년이 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은 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원은 지난해 19%였던 이 설비의 가동률을 올해 30%로 향상하겠다고 답변했다. GMP 인증 예비 컨설팅에 이어 예산 및 인원 요청, 업체 선정 및 컨설팅 진행, GMP 인증 취득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그러나 “2012년 초 갖춰진 설비로, 당시에는 향후 3년만 수요를 보고 구매했지만 2~3년 사이 국내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며 “시장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완벽할 수 없으며, 다른 설비는 잘 운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은 올해 장비 구매에만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

다. 연말 개원을 앞두고 있는 환경산업진흥원 80억원, 전남테크노파크 13억원, 생물산업진흥원 6억7000만원 등 밝혀진 것만 모두 99억 7000만원이다.

따라서 구매 전 수요를 판단하고, 각 기관의 장비를 비교해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수,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통해 각 기관들이 장비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중복 투자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출자출연기관장 토론회에서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파악하는 예산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장비 공동사용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기도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선 KTX 요금 인하하라” 광주시·전남도·전북도 의원 등 호남권 광역의원 100여명은 23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호남선 KTX 요금 인하와 운행 속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 월산 근린공원·광양 중등 생태휴식 ‘자연마당’ 조성한다

환경부는 23일 “도심 속의 자연을 복원해 생태휴식공간으로 만드는 ‘자연마당’ 조성지로 광주시 월산 근린공원, 광양시 중동, 청주시 대성동, 밀양시 내일동 등 4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자연마당은 도시 생활권 내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복원해 습지나 개울, 초지, 숲 등 생물서식처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 노원구 중계동과 부산 이기대, 인천 연희동, 군산 해신동 등 전국 8개 지역에 조성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모두 생태공간이 부족한 도시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곳이다. 9만㎡에 달하는 광양 중동은 불법 경작 등으로 훼손되고 방치돼 있다.

광주시 월산 근린공원은 지난 1967년 약 7만5000㎡ 규모로 지정됐지만, 주거 밀집지역 중심에 위치한 구릉성 산지인데다 불법 경작 등으로 훼손돼 녹지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광주시는 올해 6월까지 자연마당사업 기본설계 공모를 거쳐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3년간 40여억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이다.

이정삼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도심 내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도시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 및 시민이 내 집 앞마당과 같이 가까운 곳에서 생태적으로 힐링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재의 광주시 비서실장 사의

이재의 광주시 비서실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월28일 임명된 후 2개월여만이다.

이 실장은 “시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자연인의 신분에서 보다 충실하게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비서실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의 일이지만, 최근의 유감스러운 상황은 경위와 어떠한 제가 보다 세밀하게 챙기고 처신하지 못한 부덕의 소치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서실장직을 그만두는 것은 실제적 진실이 분명하게 규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의 상황이 광주시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실장이 원장으로 재직했던 나노바이오연구원(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산하)측에서 기자재 납품 관련 리베이트 등이 오간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출연기관 파견공무원 수당 과다 지급

감사원 감사서 적발

전남도 출연기관들이 규정을 어기고 파견공무원에 대한 파견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복지재단과 신용보증재단, 환경산업진흥원, 문화예술재단, 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등 전남도 6개 출연기관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을 어기고 해당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5명에 대한 파견수당을 1327만원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전남도는 산하 출연기관들이 법령을 위반해 파견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령에 위반해 파견수당을 지

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라”고 주의조치했다.

또 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진흥원 부설 식품산업연구원 건물 중 연구원 장비가 설치된 공간 594㎡와 사무실 공간 158.4㎡를 일반 업체에 임대해지면서 연구원 장비가 설치된 공간 2억160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징수하지 않은 임대료 2억1600만원을 해당 업체로부터 징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라고 생물산업진흥원에 통보했다. 신안군은 출자기관인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농식품회사가 매입 토지(3필지)를 군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2009년과 2010년 각 2억원과 4200만원의 보조금 전액을 교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현석기자 chadol@

전남개발공사, 여수 경도에 복합리조트 유치 추진

전남개발공사가 경도해양관광단지의 가치 상승을 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편입 후 카지노 등 신규 복합리조트 유치에 나선다.

23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7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2015년 신규 복합리조트(카지노) 2곳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 후 카지노 관광호텔 등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을 추진한다.

복합리조트는 투자 규모 1조원 이상, 5성급 호텔(1000실 이상), 카지노(연면적 5% 이하) 등의 규모다.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현재 경도 해양관광단지 내 5층 이하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이 가능해져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남개발공사의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 편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해 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까지 복합리조트 비공식적 개발 구상을 제안받고, 평가를 거쳐 올 하반기 공식제안 평가 및 사업자 선정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리조트 완공 시점은 오는 2020년으로, 최대출자자 외국인 지분비율 51%를 폐지해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올 초 취임한 양지문(58)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여수 경도골프장과 한옥호텔인 오동재·영산재, 해남 팜골호텔 등 관광사업 분야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도로정비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는 23일 “국토교통부의 ‘2014 도로정비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로정비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시·도의 일반국도와 광역시도, 지방도의 도로시설물 정비와 도로 기능 유지 상태를 평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 정비 상태 ▲노면 오일 정비상태 ▲교량 및 터널 등 주요 시설물 기능유지 상태 ▲배수시설 정비 상태 ▲낙석, 산사태 등 위험지구 정비 상태 ▲겨울철 제설대책 대비 상황 등을 평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5년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세미나

- 신 개발지 실전 투자 설명회 - 99% 만족률

코아 부동산 재테크 상담소에서 불황기 소액투자자로 가능한 실전 토지 투자법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2015년 올미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부자이며, 부자이며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다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부자이며, 부자이며를 다음과 같이 초대합니다.

강의내용

- 토지 시장의 현황과 전망
- 개발지에 성공 투자법
- 토지의 가치 판단법
- 부동산투자 맥을 짚어라
- 침체에 대처하는 부동산 시장
- 도시가 형성된 과정을 통한 미래분석
- 서남해안의 대이벤트 집중 분석
- 남양 도청 2차 오피스지구 미래분석

일정과 장소

- 2015. 03. 25(수) 1부 오후 2시~4시 2부 오후 7시~9시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693번지 J타워 3층 (첨단 2지구 북광주농협과 광주은행 사이)
- 예약 문의 : 062)576-7955

주 관 코아토지 재테크상담소

※ 공과 열정으로 가족처럼 일하실 프리랜서 여직원 00명을 모집합니다.

김영민 팀장 (1부)
박종락 대표 (2부)

코아토지 재테크상담소 감사
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한남지방경찰청 외래교수

코아토지 재테크상담소 대표
(주)새남농장 대표이사
한지인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